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7호 【루게 제24480호】 주제 103(2014)년 3월 8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사설 최후 승리를 위한 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선 여성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떨치자

전망, 전국, 전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영웅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3.8국제부녀  
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와 집단, 가정의 꽃이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역량인  
전체 여성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  
를 보내고있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는 조선녀  
성들의 존엄과 영예, 혁명적기개가  
최상의 높이에서 펼쳐지는 격동적인  
시대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  
의원선거를 앞두고 맞이하는것으로  
하여 오늘 3.8국제부녀절은  
우리 여성들에게 대를 이어 수령부,  
장군부를 누리며 위대한 사회주의조  
국에서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는 남  
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더 가슴  
뜨겁게 절감하게 하고있다.

지금 온 나라의 여성들과 전체 인  
민들은 독창적인 사상과 영도도 주  
체적조선여성운동을 현명하게 이끄  
는 여성문제해결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도의 정에 넘쳐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  
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수  
레바퀴를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  
량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며 세기를 이어가며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보람찬 삶  
을 누려가는 복받은 여성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  
찌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여성문제해결이 가지  
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  
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  
여성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창립하신데 이  
어 남다른 애정애도를 발포하신것은  
우리 여성들의 존엄과 지위, 운명개  
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  
사적사건이었다. 혁명발전의 매 시  
기, 매 단계마다 조선여성운동이 나  
이같은 길을 활히 밝혀주시며 여성문  
제해결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로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  
을수 없다.

아버지수령님의 주체적조선여성운  
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  
내이사리시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  
의 드림없는 의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성간부  
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녀  
성들은 혁명파 건설을 떠맡고  
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를 비롯  
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  
어 조선여성운동이 활력에 넘쳐 전  
진하도록 하시였으며 정력적인 영도  
도 우리 여성들이 사회와 혁명발전  
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여성들을  
천애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  
신 위대한 장군님의 다정한 사랑은 식  
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 여성들을 가  
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에도 새  
겨져있고 도처에 훌륭히 일떠선 보  
진, 교육시설들에 또 깃들여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녀  
성들을 선군시대의 참다운 여성혁명  
가들로 억척케 키워주신것은 조선녀  
성운동에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으  
로 빛나고있다. 손에 총을 잡고 조국

의 방편을 지키고있는 여성군인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처럼 대견해하며  
높이 내세워주신분이 위대한 장군님  
이시며 우리 여성들이 사회주의협동  
법률과 과학연구기술, 공장, 기업  
소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의 꽃, 나라의 주인  
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분이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여성들의 사회  
정치적생명을 빛내주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믿음과 사랑에 의  
하여 우리 여성들은 수령결사옹위투  
사, 시대의 영웅으로, 로력혁신자로  
사회와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  
며 값있는 삶을 빛내어올수 있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도밑에 승  
승장구하여온 조선여성운동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새로운 전진기를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우리 여성들을 이끌어오시고 내세  
우시며 응심같은 사랑과 정을 기울  
이시고있다. 3.8국제부녀절을 맞  
으며 진행될 성대한 음악회에 참석  
하시어 우리 여성들에게 따뜻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여성들을  
천애이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  
신 위대한 장군님의 다정한 사랑은 식  
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 여성들을 가  
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에도 새  
겨져있고 도처에 훌륭히 일떠선 보  
진, 교육시설들에 또 깃들여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녀  
성들을 선군시대의 참다운 여성혁명  
가들로 억척케 키워주신것은 조선녀  
성운동에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으  
로 빛나고있다. 손에 총을 잡고 조국

지금 우리 여성들의 사상정신세계  
는 대단히 훌륭하다. 리경심영웅과  
같이 불의의 정황속에서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옹위하고 물과 불속  
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절세위인들  
의 태상상조상화와 당의 기본기호들  
을 한복습바쳐 보위하는 수령결사옹  
위의 전위투사들이 끊임없이 배출  
되고있다. 혁명의 총대를 물어온 녀성  
군인들과 군관의 안해들, 병사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원군의 길을 뚫  
고있는 어머니를 훌륭히 보살피고  
있는 훌륭한 여성들이 우리 당의 선  
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고있다. 우리  
여성들속에는 한평생  
후대교육사업에 바쳐가며 조국의 미  
래를 가꾸는 애국자들도 있고 최첨  
단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로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미더운 과학  
자들도 있으며 빛나는 로력정성과로  
당정책을 결사판행하는 혁신자들도  
수없이 많다.

세상에는 우리 나라 여성들처럼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지니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가는 혁명적이고 강  
의의 여성들은 없다. 자기 명도자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삶의  
순간순간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애국적헌신으로 빛내어오  
는 여성혁명가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  
이다.

지금 우리 당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타  
는 열매를 맺고나가는 오늘의 총진군  
에서 여성들이 시대와 력사앞에  
진신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바라보고있다.

모든 여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들  
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긍  
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오늘의 영웅적진군에서 선군시대 조

녀성의 혁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쳐  
나가야 한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  
회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빛  
내어나가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여성들  
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사회  
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어나가  
는 데 우리 여성들의 높은 존엄과 행복  
한 삶이 있다. 모든 여성들은 사회주  
의가 없으면 운명도 미래도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우리 식 사회  
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당과 인민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  
위원회를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혁명의 제일  
생명이며 조선여성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의 근본행이다. 전체 여성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  
지 가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원수님을 정치사상적  
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  
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철고도없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총정  
의 별부리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순결한  
정신과 의리로 충직하게 받들며 우  
려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대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유일  
사상교양의 훌륭한 교재이며 우리 당  
의 로선과 정책이 집대성되어있는 대  
백과사전이다. 모든 여성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환히 꿰들기  
위한 학습을 심화시켜 자신들을 철  
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하  
여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  
회주의를 귀중히 여기고 끝없이 빛  
내어나가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여성들  
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사회  
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어나가  
는 데 우리 여성들의 높은 존엄과 행복  
한 삶이 있다. 모든 여성들은 사회주  
의가 없으면 운명도 미래도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우리 식 사회  
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당과 인민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  
위원회를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혁명의 제일  
생명이며 조선여성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의 근본행이다. 전체 여성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  
지 가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원수님을 정치사상적  
으로, 목적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  
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철고도없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총정  
의 별부리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순결한  
정신과 의리로 충직하게 받들며 우  
려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대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은 유일  
사상교양의 훌륭한 교재이며 우리 당  
의 로선과 정책이 집대성되어있는 대  
백과사전이다. 모든 여성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우리 어렵고 힘든 초소라도 서슴없  
이 달려나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  
적정신을 남김없이 파시하여야 한  
다.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자력갱생  
의 혁명정신으로 세기를 주름잡는  
영웅적위업을 창조해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한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수들처  
럼, 1970년대의 녀성혁신자들처  
럼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  
켜나가야 한다.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무와 책임을 자각하고 어머  
니로서, 안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  
할을 다해나가것이 중요하다.

모든 여성들은 승고한 후대판, 미  
래판을 지니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  
키우며 실천적모범으로 자녀들을 출  
생시켜야 한다. 그들을 백두산대국의  
기둥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  
다. 사회의 새로운 가정을 확고하게  
꾸리며 온 사회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 적  
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  
지의 선군혁명영도를 충직하게 받들  
며 올해의 영웅적진군에서 조선녀  
성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떨쳐나  
가야 한다. 당의 부름이라면 아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디마스프

수리아 아랍 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3월8일혁명 51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력사적인 3월8일혁명후 아랍사회부흥당의 영도밑에 커다란 사회경제적진보와 발전을 이룩한 수리아인민이 적대 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 103(2014)년 3월 5일 평양

## 여성들의 삶을 빛내여주는 주체의 사회주의 남조선여성들의 동경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시대의 영웅으로, 위훈의 창조  
자로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강철의 여성들의 모습을  
남조선여성들이 동경하고있다.  
남조선인민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북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  
과 똑같이 자주적인 존재, 사회  
의 주인으로 되고있다.  
이북에서는 해방후에 발표된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해 여성들  
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  
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  
리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받  
고있다.  
남조선의 온갖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 이북은  
정말로 여성들의 행복의 요람이  
며 락원이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원은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이북의 녀  
성들이 값높은 삶을 누리도록 내  
세워주시겠다고 하면서 지난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사  
회의 최하층에서 헤매던 여성들  
이 오늘은 봉건적질곡과 예측  
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영웅으로 되어  
정치에 참가하고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고 격찬하였다.

서울 관악구에서 사는 김순경  
은 이북에서는 여성들이 여러  
가지 리유로 차별을 당하고있  
지만 이북에서는 여성들이 남성  
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  
사에도 참여하고 아무런 구속도  
받음이 없이 마음껏 일하고있  
다, 이것은 이북에 여성을 위하  
는 정책이 있기때문이라고 피  
력하였다.  
여성단체연합 회원 김성희는  
여성들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한  
이북의 노래들은 바로 자기 운  
명의 주인으로, 사회변혁의 주  
체로 되어 긍지높은 삶을 누려  
가는 이북여성들에 대한 찬가  
고 격정을 더했으며 문화가 장  
진하는 세계가 청송하는 선군정  
치가 있어 이북의 여성들은 세  
상사람들이 선망해마지 않는 참  
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것이라고  
토로하였다.

로동자 김영일은 이북여성들  
은 사회와 가정의 꽃으로 사랑  
과 존경을 받으며 나라의 한복  
수메바퀴를 당당히 밀고나가고  
있다, 그리고 무료교육, 무상치  
료제의 혜택속에 보람찬 생활  
을 누리며 보람되고 있다고 말하  
며 이북여성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평양을 방문하였던 한 녀성인  
사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공화국  
반부 여성들의 모습에서 받은  
감동을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참된 세상에서 조국의 미래  
와 후손대대의 행복을 위해 열  
심히 일하며 강성국가건설의 평  
마루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이북여성들의 모습, 찬란한 미  
래를 향해가는 그들의 아름다  
움을 어찌 찬탄송이 꽃에 비기  
지 않겠나.  
태양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  
평범한 로동자, 농민의 딸들이  
《세계마라톤여왕》, 《세계녀자  
술계의 새별》로 이름떨치고  
교수, 박사, 인민과학자로 크  
나큰 믿음을 받아안은것이 아니  
겠는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사는 박  
순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에서는 도시는 물론 산간  
오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을 위  
한 전조조건들이 훌륭히 갖추  
어져있다. 그래서 이북여성들은  
누구나 해산으로부터 얘기를 키  
우는데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  
르고있다.  
산전산후휴가기간 여성들은  
로임과 식량을 일할 때와 똑같  
이 받으면서 휴식하고있으며  
모든것이 최상급으로 갖추어진

평양산원에서 평범한 여성들이  
은 한흔 내지 않고 치료를 받고  
산모들은 품을 비롯한 갖가지  
요양과 양육까지 받고있다.  
인원에서 양고있는 황정은은  
이북에는 어린이보육시설과  
교육기관들이 체계적연하게 꾸  
려져있어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  
하여 마음껏 일하고있다고 토  
로하였다. 한 녀성단체원 김성  
옥은 여성들이 혁명의 주인으  
로, 시대의 영웅으로 생을 빛내  
여가는 이북은 새로운 녀성세  
계, 희망찬 세계라고 경탄을 금  
치 못하였다.  
《참으로 이북의 여성들은 복  
받은 녀성들이다.》, 《꽃은커녕  
피지도 못하고 깃뚫히는 가  
난 잠초의 신세와 다를바 없는  
이 땅의 여성들을 보호해줄  
정당한 품은 오직 공화국의 품  
이다.》, 《이 남녘성들도 복받은  
꽃으로 피어나지만 6.15공동  
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  
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남녘의 여성들속에서 울려나  
오는 이 목소리에는 녀성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꽃피울  
위대한 태양의 품을 그리는 절  
절한 마음이 비껴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기구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김정은영도자  
평양앞전지구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영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혁명사적비와 명적비에 대한 해  
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  
실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로해  
하시였다.  
조립된 약전기계제품을 주  
의깊게 보아주시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현실에서 큰  
은을 나타내고있으며 수요도 대  
단히 늘었다고 치하하시였다.  
공장에서 지난 기간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과학  
기술을 생산에 앞세우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  
어나가고있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차임치는 과학기술중  
심기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  
였다.

세계개발정형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로해하시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새 제품연구개발에  
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  
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  
였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공장로  
동계급에 대한 조선로동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새 기술의 창조자, 개척  
자가 되어 최첨단전기계제품  
개발과 생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방송위성TV방송  
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잡지 《렘  
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런대성그룹 인터넷홈페이지,  
네팔신문 《아르판》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을 또  
다시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로씨  
야의 인터넷잡지들인 《렘퀴  
퀴》, 《한베르 저널》,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인  
터넷홈페이지는 조선인민군 1월8  
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김정은영도자께서  
본사기자

《렘퀴》, 《한베르 저널》,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런대  
성그룹 인터넷홈페이지, 동  
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  
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하고  
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를 돌아보신데 대하여, 파키스  
탄신문 《데 내이순》은 조선로  
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참  
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  
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잡지들과  
홈페이지, 내팔신문, 지역기구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  
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나이지리아주체사상연구 전  
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  
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 참  
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  
였으며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올렸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2월 25일부터 27  
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보도사는 김정은영도자께서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  
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  
을 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영도자께서 대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그이를 우러러 우렁찬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  
올렸다.  
김정은영도자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에 따뜻이 답례  
하시며 당사상사들의 강화발전  
을 위하여 헌신해온 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  
시였다.  
그이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대  
회장에는 또다시 환호성이 터져  
올랐다.

중국의 《환구시보》, 홍콩 《대  
공보》, 홍콩 방송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들인 신화망, 인민  
참고소식망, 중국망, 동북망, 로  
씨야의 이따르-퍼스트통신, 인테  
넷뉴스통신, 이란의 파르스통신,  
프레스스통신, 라지오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싱가포르신문 《스트  
레이프 타임스》, 프랑스의 AFP통신  
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우리의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갈 열의에 넘쳐있는 수도의 근로자들  
- 중 구역에서 -  
본사기자 신 총력 찍음

# 조선여성들에게는 위대한 태양의 품이 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또다시 푸르록속에 약동하는 계절이 왔다.  
따사로운 훈향을 앞세우고 찾아온 3.8국제부녀절,  
쏟아지는 봄빛에 사람도 산천도 젊어지는 이 계절 어찌하여 이 나라 여성들의 가슴가슴은 그렇게 흥분한 바람을 안고 끝없이 설레이는 것인가.  
푸르려 설레이는 한그루의 나무에도 즐거움을 무수히 뽐내고 찬만 일세를 피워주는 뿌리가 있다.  
하물며 대지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수천수만그루의 나무, 그 무성한 숲을 펼치는 뿌리를 다 헤아릴수는 없다.  
그 하찮은 뿌리를 다 셀수 없는 것처럼 조선녀성, 그 이름을 시대의 상상봉에 높이높이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공적을 찬탄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어찌 다 헤아리며 잊을수 있으랴.

그 감동적인 순간 세계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절감하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의 녀성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존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긍지와 영예를 만방에 떨칠것이라는 진리의 확신이었다.  
그렇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그 어떤 폭풍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처럼 그렇듯 훌륭한 녀성운동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나라, 그렇듯 창창한 앞날을 자랑하는 나라는 세상도 없다.  
나라였던 지난날 제 이를 석자도 쓸줄 모르던, 인간이면서도 인간값에 들수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조선녀성들이었다.  
오죽하였으면 진저리나는 골방안 노예살이를 지주하며 지주놈의 장리쌀값에 날 팔지 말아달라고 애레게 호소하는 노래까지 나왔겠는가.  
조선 언제부터였는가.  
어느때부터 우리 녀성들의 앞길에 운명의 태양, 인간존엄과 영광의 해발이 찬연히 비추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훌륭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전통은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전통이며 녀성운동역시 녀성들의 사회정치적해방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빛나는 투쟁역사입니다.》

녀성문제, 이는 녀성들의 자주적인 삶과 존엄, 사회정치적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이다.  
역사에는 녀성권리, 녀성해방 등 녀성문제와 관련하여 남긴 인류의 모태기적이 허다하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그렇듯 훌륭하게, 완벽하게 녀성문제를 해결한 나라, 녀성운동의 자랑한 역사를 가지고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광휘로운 행로를 자랑하는 우리 혁명운동의 역사를 더듬어보노라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착각한 한편의 선전화가 되버린다.  
전투적인 구조를 들고 시위에 나선 녀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기적으 로 내려오는 봉건적인 압박과 참혹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참된 권리를 찾기 위하여서는 모든 녀성들이 단결하여 싸워야 한다는 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선전화,  
《녀성해방》, 《일제타도》, 《남녀평

등》이라는 글이 새겨진 기발을 휘날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녀성들, 두손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녀성들의 모습에 봉건적인 질곡에서 뛰쳐나와 남자와 동등하게 혁명의 거센찬 대하에 뛰어들려는 우리 녀성들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은 천대받고 깃들리우던 이 나라 녀성들을 항일대전의 기치아래 묶어세운 위대한 혁명이었다.  
얼마나 많은 녀성들이 구속과 천대의 울바자를 박하고 녀성해방의 노래를 배두루 부르며 구름처럼 물러와 사름되는 혁명의 거센찬 대하에 용약 뛰어들었는가.  
그 한조항한조항에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적인 녀성해방의지자 맥떡히 흐르는 남녀평등권법령,  
이 특기할 사변으로 하여 조선녀성운동은 자기 발전의 일대 전성기, 찬란한 개화기를 맞이하였다.  
녀성의 참정권과 사회혁명등을 부인하는 봉건적인 관념이 종지부를 찍은 경률이었다.  
이 나라 녀성들이 숙명적으로 지고 다녔던 무지와 몽매의 울가미를 벗어 던지고 광명한 세계로, 슬기와 기상을 세기의 한복판으로 뻗어나오도록 충격적인 사변이었다.  
남녀평등권법령발포, 이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아도 조선녀성들의 삶을 그처럼 하늘높이 빛내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하찮은 은공을 얼마나 후더욱에 절감하게 되는것인가.  
잠자던 녀성들의 무서운 힘이 분출하여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다.

국방한 산촌에 녀인들의 명랑한 노래소리 울려다졌고 인방에 불박혀 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간 녀인들이 해방된 조국의 대지를 힘있게 활보하며 웃음을 퍼뜨렸다.  
그 거대한 격류속에서 어제날 남의 집 부엌데기로, 아이보개로 피는 물줄기를 흘리며 우리 녀성들이 주인의 긍지와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사회정치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역할을 비상히 높이는 경이적인 사변이 일어났으며 낯선고 기우자도 모르면 수 많은 녀성들속에서 문명퇴치바람이 불어왔다.  
인민주권 받들고 나가는 녀성들이 우리 힘에 조국터전 갈마다 건설된 다 노래소리로 진감하며 부강조국 건설에서 무궁무진한 힘을 파시하던

들의 위력한 조직을 가지고 녀성해는 우리의 가슴에 그 나날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추억의 말씀이 더러 온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어느 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집무실의자에 등을 기대신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가요 《녀성의 노래》를 들으시었다.  
그러한 어버이수령님을 경건히 우리러던 일군이 김정숙동지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던 노래라고 목메어 말씀올리었다.  
저를 추억의 감정에 휩싸이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때, 정숙동무가 저 노래를 무척 좋아했지, 저 노래는 정숙동무와 인연이 깊은 노래요, 하루종일 공장과 농촌의 녀성들을 찾아다니고는 저녁에 돌아와 저 노래를 부르며 이제는 너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새 조선건설에서 한 몫하게 되었다고 기뻐하곤 했소, 그때 정숙동무가 나를 받들어 녀성사업을 많이 했소라고 말씀하시었다.  
참으로 녀성문제는 김정숙동지께서 각별히 품을 들이신 분야였다.  
조선녀성들의 삶을 갈수록 꽃피워 주신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께서 조국청사에 남긴 불후의 공적은 만인의 경탄을 자아냈다.  
우리 잠시 남북편석회의에 참가하였던 김구가 남긴 심정의 목소리를 되새겨보자.  
《북조선의 민주건설과도 경이롭지만 과거에 천대의 대상이요 약자의 상징이던 녀성들이 장부들과 약속을 이루어 국가정사를 론하고 사회의 만사에 적극 참가하며 아무런 구김새없이 패활명랑한 상으로 다분히 다분히 살고있는데 정말 충심으로 탄복했소.

그로서 그들의 뒤에는 필경 위대한 지도자가 계시리라 짐작했었는데 그분이 바로 장군님의 녀성해방사상을 받들어 조선녀성운동을 성공으로 인도하고계시는 김정숙녀사 이시더라 말ियो.  
녀사께서는 총을 잘 쏘시고 왜놈을 쏘아죽여민중의 진정의 영웅이신군사를 무만 앞당겨서 나라 민생을 굶어살피시는 어머니이시고 조선녀성들을 새 조선건국에서 계획의 영예에 이끌고나가는 참다운 운동의 지도자이시요.  
세계정치계도 한결같이 칭송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녀성에게서 녀성들의 처지는 일제식민지하에서의 그것과 천지의 차로 전변되었다. 조선녀성들은 자기

우리 조건의 녀성들에게 있어서 류더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3.8 국제부녀절,  
의미깊은 날과 더불어 잊을수 없는 이대전 세계를 진동하였던 조선에서의 국제부녀절경축행사가 우리 녀성들의 가슴에 그윽히 차넘친다.  
우리의 가슴아픈 애도기간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강행한 리명박악적당과 당락조 미제의 화해책공기는 전쟁연속으로 하여 이 땅에서는 다치면 리질것 한 전쟁전야의 심각한 사태가 무겁게 배회하던 때였다.  
우선 세계가 숨을 죽이고 우리 조국을 추시하던 바로 그 시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8 국제부녀절을 맞는 온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도록 해주시었다.  
온 나라에 격정의 대화가 세차게 울려다졌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우리 어머니님께서 온갖 정으로 위해주시던 이 나라 녀성들에게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오직 우리 조국에서 만 볼수 있는 희한한 화복을 펼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게 대한 다행없음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울고 싶어도 선군혁명의 찬란한 꽃이 어찌갈 조선녀성들의 비쌍한 맹세가 분출된 격동적인 경축열기였다.

## 위대한 수령님의 명언해설

###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동력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명언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녀성들이 차지하고있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로 《세기와 더불어》에서 녀성들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한다는 나의 주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피로 물들여진 항일의 혁명력사와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의 직접적인 참가자, 증언자로서의 산체함에 기초한것이라고 쓰시었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동력이다.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우리 혁명투쟁역사의 갈피마다에는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서온 녀성혁명가들의 영웅적위훈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항일혁명투쟁시 원수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라고 웨친 최희숙동지와 최후의 순간에도 《조선혁명 만세!》, 《녀성해방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장렬한 최후를 마친 안순화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안영애, 조옥희, 신포향과 같은 조국해방전쟁시기의 녀성영웅들과 전후북부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수많은 유명부녀들의 노력적인 자들의 위훈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같이 전해지고있다.  
우리 혁명앞에 준연된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녀성들은 후추의 동요도 없이 원군기공을 높이 발휘하였으며 누가 보지않던, 알아주지않던 날이 멀거진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냈다. 이런 혁명적녀성들이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시련과 난관을 겹쌓이는 속에서도 승리와 활력에 넘쳐 즐기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선군시대 녀성혁명가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가고있다.  
우리 녀성들속에는 당의 품속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 협동농장관리위원장으로 성장한 녀성일꾼들도 있고 당의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만들어나가는 녀성

군인들도 있으며 과학전진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녀성과학자, 기술자들도 수없이 많다. 온 사회에 혁명적력판과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체의기공이 차넘치게 하며 가정을 혁명화하고 자녀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나가는 데서 우리 녀성들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 지난날 시대박에 밀려나 갔을 때의 억압을 받던 우리 녀성들이 오늘과 같이 사회주의조국과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령도밑에 되고있는것은 우리 조국의 크나큰 자랑으로 된다. 온 사회에 혁명적기백과 광망, 생기와 활력이 차넘치게 하고 누구나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 선구자로 살며 투쟁하고있는 우리 녀성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전체 녀성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언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변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열해 총진군에서 조선녀성의 영웅적기개를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김성룡

## 녀성구분대에 새겨진 사랑의 이야기

최절연에 위치한 한 녀성구분대에 감격의 열풍이 일어났던 주제 95 (2006)년 2월 어느날이었다.  
쫓겨에도 그러며 달려가 안고있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대를 다녀가셨던것이다. 발이안은 사랑과 은정이 누구도 크고 뜨겁운것이어서 녀성군인들은 그이께서 가진폭을 바라보며 마냥 설레이고있었다.  
그중에서도 한 녀병사의 감격과 흥분은 류타르졌다.  
(정말 내 얼굴이 그러도 고왔을가?!...)  
위대한 장군님앞에 나섰던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보고 또 보는 녀병사는 아직도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축축히 젖어든 두눈을 슬며시며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는 녀병사와 이 구분대에 과연 어떤 사랑의 이야기 가 있기에 만사람의 사랑을 울려냈던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는 총잡은 군인들을 단순히 최고사령관의 전사라는 군직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라고 보고 그들을 끝없이 사랑합니다.》  
그이께서 부대를 찾으시었을 때였다. 혁명의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서 보란만 부부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이곳 군인들의 생활을 전부

모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휘사장으로 향하시었다. 점심준비가 한창인 휘사장은 뜬 김까지 보얗게 서려있는데다가 음식 냄새가 가득 차있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환히 웃으시며 휘사장에 들어서시었다. 그 녀병사를 비롯한 식량군무성원들의 인사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기쁨기가 활활 도는 콩밥을 보시고 먹음직스럽다고, 밥은 흰쌀만 가지고 할것보다 콩을 적당히 섞어 한것이 더 구수하다고 말씀하시었다. 가마에 콩과 쌀은 어떤 순서로 안치며 물은 얼마나 부어야 하는가 등 콩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다심하신 말씀, 살뜰한 은정에 식량군무성원들의 가슴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문득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녀병사에게 언제 군대에 입대하였는가고 물으시었다.  
5년전에 입대하였다는 그의 힘찬 보고를 들으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구대원이라고 못내 대견해하시었다.  
튼튼하고 균형잡힌 녀병사를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군대에 나옴기 전부터 몸이 좋았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었다.  
《아닙니다. 입대하기 전에는 약했었는데 콩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좋아졌습디다.》

학교때 몸이 너무 약하여 동무들로부터 놀림을 받던 일이 생각나 녀병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는 녀병사에게 화장을 했는가고 또 물으시었다. 화장을 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신듯 우우웃도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시던 그의 이안쪽에 기쁨의 미소가 어리었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꾼들에게 화장을 하지 않은것이 옳다고, 그런데도 이렇게 얼굴색이 보얗고 곱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에게 콩을 많이 먹어서 얼굴이 보얗게 고와지게 하였는것이 소원이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소원이 풀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동행한 일꾼들도, 부대지휘관들도 녀병사도 승만한 격정에 휩싸였다. 콩살이 올라 고와지고 튼튼해진 우리 병사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시며 콩이 제일이라고, 얼마나 좋은가고 그러도 기뻐하시느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은 고향집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이 나라 천만자식을 품어안아 보살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이었다.  
우리 장군님의 소원대로 고와진 병사의 얼굴,  
정녕 잊지 못할 그날은 우리 장군님의 소원이 풀린 날이었다.  
본사기자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녀성들

## 뜨거운 인정미는 어머니의 천품

3.8국제부녀절을 맞는 뜻깊은 오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잊지 못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로 향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투사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뜨거운 인정미는 어머니의 천품이겠습디다.》  
백두산대장군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안도원일대에서 활동하시던 주제 29(1940)년 10월 중순이었다.  
그때 이 일대에 떠돌고있던 어느 한 소부대가 편락하던 통신원의 회색으로 사령부와 편계를 맺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식없는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이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굶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여간만 근심하지 않으시었다. 때로는 밤잠도 이루고 싶을때를 맞고 하시었다. 그들을 기다려 끼니를 건네기도 하시었다.  
혁명투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우리러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천과 솜을 꺼내드시었다. 우동불겉에서 밤을 지새

우시며 돌아오 소부대성원들의 솜을 만들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위우시는 대원들의 이름을 되새겨보시며 품과 기개를 뽐으로 재어나가시면서 재단을 하고 한복뚜름 정성껏 솜을 지으시었다. 그러시고도 성의가 부족할것만 같아 그들에게 줄 여러가지 기념품도 만들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기념품들에 수까지 놓아 솜을 주머니마다에 하나씩 넣으시었다.  
무슨 돌이올지 모를 자식이건만 먼저 읊시던 때로 간수해두기를 잊지 않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의 심정대로 김정숙동지께서는 거기마다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어 식량을 조금씩 갈라주셨다.  
머칠후 부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이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굶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여간만 근심하지 않으시었다. 때로는 밤잠도 이루고 싶을때를 맞고 하시었다. 그들을 기다려 끼니를 건네기도 하시었다.  
혁명투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우리러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천과 솜을 꺼내드시었다. 우동불겉에서 밤을 지새

우시며 돌아오 소부대성원들의 솜을 만들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위우시는 대원들의 이름을 되새겨보시며 품과 기개를 뽐으로 재어나가시면서 재단을 하고 한복뚜름 정성껏 솜을 지으시었다. 그러시고도 성의가 부족할것만 같아 그들에게 줄 여러가지 기념품도 만들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기념품들에 수까지 놓아 솜을 주머니마다에 하나씩 넣으시었다.  
무슨 돌이올지 모를 자식이건만 먼저 읊시던 때로 간수해두기를 잊지 않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의 심정대로 김정숙동지께서는 거기마다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어 식량을 조금씩 갈라주셨다.  
머칠후 부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이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굶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여간만 근심하지 않으시었다. 때로는 밤잠도 이루고 싶을때를 맞고 하시었다. 그들을 기다려 끼니를 건네기도 하시었다.  
혁명투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우리러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천과 솜을 꺼내드시었다. 우동불겉에서 밤을 지새

우시며 돌아오 소부대성원들의 솜을 만들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위우시는 대원들의 이름을 되새겨보시며 품과 기개를 뽐으로 재어나가시면서 재단을 하고 한복뚜름 정성껏 솜을 지으시었다. 그러시고도 성의가 부족할것만 같아 그들에게 줄 여러가지 기념품도 만들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기념품들에 수까지 놓아 솜을 주머니마다에 하나씩 넣으시었다.  
무슨 돌이올지 모를 자식이건만 먼저 읊시던 때로 간수해두기를 잊지 않는 이 나라의 어머니들의 심정대로 김정숙동지께서는 거기마다 소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어 식량을 조금씩 갈라주셨다.  
머칠후 부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대성원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이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굶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여간만 근심하지 않으시었다. 때로는 밤잠도 이루고 싶을때를 맞고 하시었다. 그들을 기다려 끼니를 건네기도 하시었다.  
혁명투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모습을 우리러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천과 솜을 꺼내드시었다. 우동불겉에서 밤을 지새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녀성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녀성들

주체사상탑에서 본사기자 찍음

# 공화국공민된 긍지를 안고 모두가 선거에 참가하여 애국의 한표를

##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져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인 정권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의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선거의 날을 눈앞에 둔 평안남도와 량강도의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는 고마운 인민정권을 끝없이 빛내어갈 열의로 가슴 불타고 있다. 이들모두의 가슴은 이번 선거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찬성의 한표를 바쳐 우리의 인민정권을 더욱 굳건히 만들어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다.

### 평안남도에서

어제 한겨레 로동계급만이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 주체비로가 쏟아집니다.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판결에서 남흥로동계급의 본분을 다 하겠습시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이렇게 신심으로 아뢰이며 사회주의협동법들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도의 협동법들마다에서 농사차비전투가 마감단계에 서있는데 다그쳐지고 있다.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은 이 비약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온 평안남도 비상한 애국열의로 끓어오르고 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도안의 모든 선거위원회에서는 선거장을 잘 꾸려놓고 선거선전활동을 널리 게시하고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일러마더에서는 수많은 선동원들이

어 우리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우리의 입심단결을 더욱 힘있게 떨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도안의 모든 선거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의 앞날을 끝없이 창창하다는 필승의 신심을 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특파기자 리 혁철

### 량강도에서

로 만들어가는 공화국공민들의 열렬한 애국적헌성을 남김없이 파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 사업을 진흥적으로 벌여나감으로써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수령, 우리 제도,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확고한 판심을 지니고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우리 공화국정권을 반석같이 다져 나가도록 하고 있다.  
 도에서는 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선거구들에 내려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을 위한 회의가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진행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선거자들은 높은 정치적열의를 안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회의에 100% 참가하여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추천 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하는 회의는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들은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흘림으로써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한 자부심을 안고 선거장에 멋있게 들어서 결의에 넘쳐 사회주의생산경쟁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도에서는 또한 선거분위기를 세우기 위한 선전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  
 선거, 선거분위기를 선거장들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도 잘 조직해나가고 있다. 수많은 선거자들이 애국의 한마음으로 선거장을 꾸리는 데 뜨거운 지성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  
 도당위원회의 구체적인 지도 밑에 선거, 선거분위기를 《모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갈!》을 비롯한 구호들이 다지고 청소년학생들의 취주악대활동, 너털원들의 아침출근행진과 다양한 선전선동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도안의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정치적주인 인민정권의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깊이 새겨주는 다양한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도안의 모든 선거자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광명한 미래로 신심뜨들이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칠 열의로 가슴 불타고 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로동계급

일군들은 로동계급에 깊이 들어가 당정책판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더 높은 비료생산성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뜻깊게 맞이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눈앞에 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산투쟁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비료생산 1.3배!  
 새 소식을 알리는 속보판이 눈앞에 안겨온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비료출하장 앞 구내길로 비료를 가득 실은 화물열차와 자동차들이 사회주의농촌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다.  
 보기가만 해도 가슴흐뭇해지는 광경이다.  
 그들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누구나 커다란 로력적열의를 안고 대의원선거를 뜻깊게 맞이함으로써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드높은 열의가 차넘치고 있다. 구내길들과 전두현장들을 떠돌아다니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대의원들의 활동이 련합기업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의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지는 데 적극 이바지할 불같은 마음을 안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월월결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대중중심으로, 생산성으로, 로동으로 더 생산하여 사회주의농

### 선거의 날 온 동네가 들쭉하게 제429호구 제40호분구선거장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이 있음으로 하여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고 있는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으며 인민정권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429호구 제40호분구선거장을 찾았다.  
 공화국기며 오색테이프, 꽃송이들과 《입심단결》, 《강성국가》, 《찬성투표》, 《3월 9일》이라고 쓴 글방들로 단장된 선거장은 경축분위기에 넘쳐 있었다. 선거자명부를 마주한 선거자들의 열광마음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져갈 혁명적열의의 신념과 불타는 맹세가 비껴

있었다.  
 우리와 만난 동사무장 백은선 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선거를 앞둔 동주민들의 애국열의가 대단합니다. 선거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의해 선거장이 이처럼 훌륭히 꾸려졌습시다.》  
 그러면서 부장동 19인민반에서 사는 박성철, 김영화부부가 가정에서 60여송이의 붉은 꽃송이를 성의껏 만들어가지고 선거위원회에 찾아오고 자강도립업관리국의 청년동맹일군인 백항동무가 수심m의 색갈고운 비단베지를 안고오는데 대하여, 분구안의 많은 주민들이 선거장을 꾸리는 사업에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는데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감동을 금치 못하고 있는 때에 한 일군이 이렇게 말하였다.  
 《사무장동무, 우리 선거날은 거리가 들쭉이게 흥겨운 줄

### 신 의 주 시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의 날을 앞두고 신의주시가 선거분위기로 대환속 되어지고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애국의 한표를 바쳐 세대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갈려는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에 의해 시안의 선거장들에 경축분위기가 차넘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선거자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적극 참가함으로써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열의를 빛내이며 공민적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시안의 거리들마다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방송선전차의 선전활동과 학생소년들의 가창대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선거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며칠전 제225호선거구 제1호분구선거장을 찾은 우리는 선거위원회 위원장 고순복 동무를 만났다. 선거장을 더 잘 꾸리는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고 있는 선거자들에게 대한 그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동깊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락원기련합기업소와 신의주화

### 창조와 위훈의 하루하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민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끝없는 격정속에 받아안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 높은 비료생산성으로 이번 선거를 뜻깊게 맞이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모두의 삶의 요람인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고는 세상에 더욱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 생산성경쟁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모두의 삶의 요람인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고는 세상에 더욱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 생산성경쟁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모두의 삶의 요람인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고는 세상에 더욱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 생산성경쟁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모두의 삶의 요람인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고는 세상에 더욱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 생산성경쟁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갈 결의에 넘쳐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2호구 제99호분구 선거위원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적음

### 누구나 혁신자의 자랑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자학을 가지고 공민적의무를 다하는 길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습니다.》  
 해산청년광산 선거장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흥성하고 있다.  
 그곳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63호구 제17호분구선거위원회 선거장앞에 공시된 것이다.  
 출근길에 오르면 강로 경음을 다그치던 그들이건만 선거자명부가 공시된 다음부터는 여기서 지연히 멈춘다.  
 왜 그렇지 않으랴. 이들모두의 가슴은 이번 최고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복동이며 음향설비를 들고 들어서서 그는 제429호선거구 제40호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 최순복동무였다. 경사로운 선거의 날 분위기를 들추려는 그의 얼굴에 웃음이 한껏 어려 있었다.  
 선거장을 돌아보면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인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더욱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 있다. 이번 선거의 열의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뜨겁게 느낄수 있다.  
 우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조국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입심단결을 다시금 온 세상에 시위하려는 선거자들의 혁명적열의를 가슴뜨겁게 느끼며 선거장을 나섰다.  
 특파기자 동세웅

### 한 달 계획을 한 주일에

해주시 연양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력방향입니다.》  
 해주시 연양협동농장의 농장원들이 드높은 애국의 열의를 안고 선거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민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끝없는 심정에 받아안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 높은 비료생산성으로 이번 선거를 뜻깊게 맞이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모두의 삶의 요람인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고는 세상에 더욱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 생산성경쟁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모두의 삶의 요람인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고는 세상에 더욱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 생산성경쟁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할 열의안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모두의 삶의 요람인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고는 세상에 더욱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 생산성경쟁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화평련합사업소에서- 본사기자 적음

### 만선의 배고동소리높이 선거장으로

김책대경수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을 수려세우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김책대경수산업소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이 곳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수산물생산에서 헌신적열의를 일으키고 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이 곳 수산사업소를 여러차례 찾으시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담정신을 안고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더 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의 모든 전투원들이 드세한 돌격전을 편속 들이대며 3월월결을 확고히 달성해 나갈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윽하여 그들은 강으로 힘찬 발걸음을 옮기었다.  
 혁신자의 자랑안고 경사로운 선거의 날 모두가 찬성의 한표를 바쳐 우리의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져갈 마음이다.  
 수산사업에서는 우선 고기배의

###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사리원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심기는 전군중적운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사리원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사리원시지대대학 리계순사리원제1사범대학의 청년대학생들도 조국의 산을 푸른 숲으로 가꾸어갈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수심이 좋은 많은 나무들을 심어 심었다.  
 시향정사업소, 사리원시조선식품공장, 시주해보수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조주에 따라배우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킬 한마음안고 불철나무심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도의 책임일군들도 모범적인 로력적열의와 함께 시의 중심에 있는 공원에 은행나무와 수삼나무, 창성이갈나무와 산수유나무를 비롯한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나무들을 심었다.  
 당의 뜻은 뜻을 받들고 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부강조국건설에 애국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갈 마음안고 나무심기를 잘해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이념론에서 사회주의적노의 품수에서 무림산살을 누려가는 여성들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여성들에 대한 노래는 그 어느 나라에나 있다. 여성에 대한 존경과 사랑, 어머니들이 지닌 따뜻한 정, 여성의 순결과 헌신 등 여성들의 미덕을 찬양하는 노래들은 많지만 현대 여성들이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참다운 인생관을 가르쳐주는 노래는 찾아보기 힘들다.

근로하는 여성들 누구나 자신의 노래를 부를수 있는 생활과 투쟁의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담은 노래, 여성들의 사랑관, 행복관, 가치관이 선결과 가사마다에 집약되어있는 노래야말로 여성들의 존엄과 행복을 구가한 노래가운데서도 가장 훌륭한 명곡으로 될 것이다.

한가정의 꽃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려주는 우리 조선여성들에게는 여성들의 운명과 행복의 미래에 관한 영원한 삶의 진리를 밝혀주는 노래가 있다.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주권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어 새 조국건설에 힘과 열정을 다 바쳐가는 우리 여성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과 아름답고 미더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여성의 노래》이다.

노래가 태어난 때로부터 60여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노래가 오늘날까지도 우리 조선여성들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로 불리워지고있는 것은 우리 여성들의 존엄높은 삶과 행복의 근본담보, 삶의 영원한 생명선이 무엇인가 하는 의의 있는 사회정치적문제를 생생한 예술행사에 담아 진실하고 절절하게 밝히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 여성운동은 훌륭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있습니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자신

한편의 노래에 비낀 조선여성들의 운명과 미래

명곡 《여성의 노래》의 역사를 더듬으며

향일의 너투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혁명의 길에 나섰으며 피흘려 쓰러지면서도, 원수들에게 두눈을 잃는 마지막순간에조차 혁명승리의 날을 눈앞에 그려보았는가.

손에 총을 잡고 투쟁에 나선 때로부터 향일의 너투사들이 신념으로 간직하였는 민족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으며 조선여성들은 김일성장군님뒤에 못쳐야만 여성해방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여성의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우리 여성들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는 항일무장투쟁에 뛰어들었다는 말리는 살수 없는 조선여성들의 가장 올바른 운명의 선택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혁명하는 길에 이 나라 여성들의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것은 향일의 피바다, 불바다속에서, 민주건설의 첫 시기에 조선여성들이 찾은 삶과 투쟁의 진리였으며 그것이 그대로 가사와 선물로 압축되면서 울림에 선 분신화를 노래하던 과거시대의 구슬픈 곡조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밝고 씩씩한 여성의 노래가 태어나게 되였다.

《여성의 노래》는 조선의 여성혁명가의 전형인 향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사랑하시어 즐겨부르셨던 노래이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삶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것으로 하여 여성들의 운명과 생활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전변, 자주독립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조선여성들의 삶이여, 이 노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모든 사회의 보편적사실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정권이 자기의 반동적본질로 하여 도저히 가질수 없고 흥내조차 낼수 없는 우리 제도에, 우리 정권만이 지닌 참다운 우월성이다.

수십년을 두고 면면히 이어져온 여성존중, 여성중시의 력사와 더불어 수많은 여성들이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이 안겨준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였다.

그 나날마다 우리 여성들은 그 열마나 키높이 성장하였는가를, 이제날의 처녀대의원 안명옥동무가 한계 군의 행정경제사업을 맡은 책임일군이 되어 연구 《오늘을 추억하리》의 원형으로, 로력영웅으로 자랑났듯이 수많은 근로여성들이 당의 신인, 인민의 기둥과 함께 긍지높은 성장의 길을 걸었다.

얼마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인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이 역사적인 대회의 높은 연에도 지방주권기관의 한 여성대의원이 올라 토론하였다.

김정숙어머님이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하루종일 공장과 농촌, 어촌의 여성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새 조국건설에 불리일으키고 저녁에 돌아오시어는 이 노래를 부르시며 이제는 너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새 조국건설에서 한몫하게 되였으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향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해방을 맞이한 전체 조선여성들에게 하고싶었던 가장 절절한 호소와 일치를 이루셨으며 하여 《여성의 노래》는 어머님께서 류달리 사랑하시는 노래로 되였다.

《여성의 노래》를 창작한 김옥성 작곡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작곡가의 자리에 내세워주신 향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여성의 노래》를 지은 김옥성동무께 이렇게 만나니 정말 좋다고도 감사 기뻐하시며 친히 그에게 축배를 부어주시였다.

《여성의 노래》가사에 있는 《씩씩하게 몸치자 장군님뒤에 찬란한 우리 조국 완전독립 위하여는 어머니같이 백두산시절부터 간직하여오신 여성문제해결의 생명선이었으며 여성들을 부강조국건설의 강력한 역량으로 묶어세우는 단결의 위대한 기지였다. 이 나라 여성들이 무엇을 위해 살며 투쟁하여야 하며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관의 전부가 이 노래에 비껴있었고 해방후 우리 여성들이 찾은 참다운 인생의 길, 행복의 길이 여기에 담겨있었다.

이 노래는 우리 여성들의 운명과 생활에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상심에서 나라 여성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공장과 농촌의 여성들 누구나 즐겨부르는 유명한 노래로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뒤에서

곧게 뚫어 부강조국을 건설해나가는 조선여성들의 심장속에 단결의 기지가 되고 애국의 힘을 폭발시켜준 《여성의 노래》는 가슴마다에 불타는 애국심을 간직한 공장과 농촌의 수많은 여성들을 새 조국건설에 불타게 불리워졌었다. 이 노래와 더불어 우리 여성들의 운명과 생활에서는 커다란 극적변화가 일어났다.

《여성의 노래》가 울리는 곳마다에서는 눈물과 한숨속에 살아온 어제날의 부엌대기가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인민주권기관 대의원으로 되는 골같은 현실이 펼쳐졌고 이를 적어도 쓸쓸 모르면 천덕꾸러기가 세 손으로 쓴 편지를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 우리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펼쳐졌다. 공장과 농촌의 평범한 근로여성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여성영웅, 여성애국자, 여성혁신자들로 올라보게 성장하였다.

여성들의 운명과 행복의 미래는 김일성장군님의 뒤에서 모지는데 있다는 여성문제해결의 영원한 생명선을 밝힌 여기에 《여성의 노래》가 지은 역사적무거운 무게와 가치가 있는것이다.

《여성의 노래》가 처음으로 울려 퍼진 민주건설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여년의 력사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남평등권의 위대한 력사사도 같은 인민전선의 하에서 우리 여성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는 행복의 력사와 일치된다. 이 노래의 력사는 여성들의 몽친 힘으로 향일혁명선열들이 피로써 준 조국땅을 사회주의강성국가의 큰 집을 일떠세우는 위대한 창조적 력사와 더불어 우리 여성들의 운명과 생활에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상심에서 나라 여성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공장과 농촌의 여성들 누구나 즐겨부르는 유명한 노래로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뒤에서

를 지켜주고 꽃피워준 참다운 인민주권이 어떻게 반석같이 다져졌는가를 《여성의 노래》는 새 세대 여성들의 심장속에 똑똑히 새겨주고 있다.

혁명선열들이 피흘려 싸운 대가로서 여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는 인민주권이 시고 행복의 첫머리를 마련하였음을 잊지 말라고, 향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당부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여성의 노래》는 력사의 종소리를 울려 주고있다.

향일의 너투사들이 피흘려 쟁취한 귀중한 조국땅에서 행복을 누리기만 해서선 선택들의 피와 목숨과 바꾼 《여성의 노래》의 진짜 주인공이 될수 없고 이 노래를 전설같은 이야기가 펼쳐졌다. 공장과 농촌의 평범한 근로여성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여성영웅, 여성애국자, 여성혁신자들로 올라보게 성장하였다.

여성들의 운명과 행복의 미래는 김일성장군님의 뒤에서 모지는데 있다는 여성문제해결의 영원한 생명선을 밝힌 여기에 《여성의 노래》가 지은 역사적무거운 무게와 가치가 있는것이다.

《여성의 노래》가 처음으로 울려 퍼진 민주건설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60여년의 력사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남평등권의 위대한 력사사도 같은 인민전선의 하에서 우리 여성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활짝 꽃피는 행복의 력사와 일치된다. 이 노래의 력사는 여성들의 몽친 힘으로 향일혁명선열들이 피로써 준 조국땅을 사회주의강성국가의 큰 집을 일떠세우는 위대한 창조적 력사와 더불어 우리 여성들의 운명과 생활에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상심에서 나라 여성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공장과 농촌의 여성들 누구나 즐겨부르는 유명한 노래로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일에 선군조선의 변혁기가 펼쳐지는 오늘날의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모든 여성들은 원수님의 뒤에서 곧게 뚫어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으며 《여성의 노래》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되였다.

씩씩하게 몸치자 원수님뒤에! 이것이 우리 시대 여성들의 심장속에서 터져나오는 영원한 삶의 요구이며 이 노래에 더욱 뜨겁게 더해지는 진할줄 모르는 애국의 호소, 강렬한 충성의 호소이다.

《여성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여성들이 과거시대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실적인 감정과 시대의 부름을 받아안게 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뒤에서 곧게 뚫어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조선여성들의 본질적인 사상정신적특질을 고상하고 유순하면서도 의지적인 성격이 백백히 주는 현실적인 사랑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안일하게 살기를 바라지는 여성이 있다면 그에게 《여성의 노래》는 이렇게 말해줄것이다. 부강조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를 지켜서 남평등과 한전도, 한초소에 서있는 군인가장, 로동자부부, 과학자부부, 애국농민부부가 많을 때 사회주의강성국가의 큰 집은 하루빨리 일떠서게 될것이라고.

《여성의 노래》를 부르는 성장한 선군조선의 여성들은 한가정의 살뜰한 안배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대가정의 주부가 된 심정으로 가정과 사회, 일터를 아름답게 꾸리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자기 몫을 다해나가고있다.

《여성의 노래》와 더불어 우리 여성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사회정치적역할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혁명의 한복속매바귀를 힘있게 떨쳐나가며 우리 여성들은 오늘 위대한 수령의 뒤에서 곧게 뚫어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어제날 품었던 나의 소중한 꿈을 시대의 높이에 꽃피우기위해 성장의 길목들을 손잡아 이끌 어주었다.

이 나날에 나는 요란한 평가나 번쩍이는 훈장을 바라가지 전에 품어안아 키워준 조국을 깨울만한 광망과 의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 당이 150여년부터 대고대운을 보내오며 펴려보려 결심하고 기대를 함께 맞이하는 리명순동무와 이악한 투쟁을 벌였었다. 우리는 그해에 8대의 기대로부터 12대, 21대까지 직기를 맡아 천을 짜면서 5년 분계회를 완수하였다.

사회에 진출하여 16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 이렇듯 인생의 영광이란 영광은 다 받아안았으니 나처럼 높은 삶의 단상에 오른 여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3. 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나는 세상이 다든듯 격조높이 채워지고있다.

우리 여성들의 운명의 보호자이시며 친어머니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은 신념에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조선 여성의 긍지와 영광은 팔이 없었고.

김정숙평안남도직공장 직포공로력영웅 문 강 순

평범한 여성들이 인민의 대표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선 일찌기 여성들은 혁명의 한복속매바귀를 떠맡고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였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선거를 하루 앞두고 시작 3. 8국제부녀절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기쁨이 넘었다.

하늘에 넘치는 축하, 향기로운 꽃다발우며 떠받들려주는 밝고 환한 모습들이었다.

가정과 일터, 사회와 집단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보람찬 삶을 빛내여가는 우리 여성들이었다.

《환희의 이 아침 선거장마다에 나날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의 사진가운데서 누구들이 제일 눈길을 끄는가. 여성대의원후보자들이었다. 나라의 정사를 도하는 인민의 대표로 선출될 저 여성들, 그들은 과연 어떤 여성들이인가? 이러한 호기심을 내비치는 사람들에게 일 잘하기로 소문난 우리 작업반장이라고, 수십년간 근로일, 마른일 가리지 않은 도사관련인, 성실한 신발수리공이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목소리들이 들린다. 그렇다. 우리 여성대의원후보자들은 누구나 근로하는 인민이 잘 알고있는 평범한 여성들이었다.》

수십살에 걸치는 우리 혁명투쟁의 력사속에는 근로대중의 딸로 태어나고 자라난 평범한 여성들을 인민의 대표로 내세운 여성존중, 여성중시의 력사가 깃들여있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외전 산골촌인 신앙명에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다.

《우리 군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가 갔네요.》

군의 곳곳으로 파다하게 퍼져간 이 소식은 신앙사람들을 자못 흥분시켰다.

사람들의 이름은 군이 생겨 처음으로 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느라고 쏘리였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선거장으로 달려갔다.

선거장에 나날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공시관앞에서 그들은 너무도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였다.

읍지구의 주민들은 격동된 마음으로 대의원후보자사진들의 글자를 읽었다.

《이름 안명옥 직장 및 직위 신앙녀자고등중학교 교원》

자기가 립산집으로 부르는 평범한 로동자 가정의 막내딸, 학생들에게 공부를 남달리 잘 시킨다는것밖에는 별로 표나느것이 없는 29살의 수순한 처녀교원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은 온 신앙마을을 들끓게 하였다.

군이 생겨 처음인 이 경사를 통하여 신앙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대표로, 인민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되는가를 깨달았다.

대중과 함께 일하고 대중이 잘 아는 평범한 여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지방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출되는것은 오로지 나라에서 진행된 모든 사회의 보편적사실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정권이 자기의 반동적본질로 하여 도저히 가질수 없고 흥내조차 낼수 없는 우리 제도에, 우리 정권만이 지닌 참다운 우월성이다.

수십년을 두고 면면히 이어져온 여성존중, 여성중시의 력사와 더불어 수많은 여성들이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이 안겨준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였다.

그 나날마다 우리 여성들은 그 열마나 키높이 성장하였는가를, 이제날의 처녀대의원 안명옥동무가 한계 군의 행정경제사업을 맡은 책임일군이 되어 연구 《오늘을 추억하리》의 원형으로, 로력영웅으로 자랑났듯이 수많은 근로여성들이 당의 신인, 인민의 기둥과 함께 긍지높은 성장의 길을 걸었다.

얼마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인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이 역사적인 대회의 높은 연에도 지방주권기관의 한 여성대의원이 올라 토론하였다.

평을 가지고 선반을 둘러머 도로를 관리하는 평범한 녀인이 국가정사를 의논하는 인민의 대표로, 주권기관의 담당자로 되고있다.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대의원선거를 하루 앞두고 맞이하는 뜻깊은 3. 8국제부녀절의 이 아침, 흥성은 선거장에서 여성대의원후보자들의 수순한 모습이 비친 사연을 돌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뜨겁게 뇌이리라.

저 평범한 여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대표들이라고, 우리 정권은 여성들을 포함한 근로대중속에 깊은 뿌리를 박고있고있다.

본사기자 허 명 숙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고있습니다.》

3. 8국제부녀절을 맞을 때 마다 나는 생각이 많아지군만하다.

이 땅에 나처럼 부엌을 나서지 못한 여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꽃이 피면 지금도 꿈만 같다.

5년전,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신자들을 친히 부르시어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 때 나는

정말로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당의 경영정책을 받드는 전사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던간장한 일을 할말차지를 만나신듯 그러도 기뻐하시던 우리 장군님.

천년이 흘러도 그날의 격정을 잊을수 없는 때 저는 평범한 여성들을 우리 집에 모시는 더없는 영광을 또다시 지니였다.

이 땅에 나처럼 부엌을 나서지 못한 여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꽃이 피면 지금도 꿈만 같다.

5년전,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신자들을 친히 부르시어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 때 나는

당조직에서는 어제날 품었던 나의 소중한 꿈을 시대의 높이에 꽃피우기위해 성장의 길목들을 손잡아 이끌 어주었다.

이 나날에 나는 요란한 평가나 번쩍이는 훈장을 바라가지 전에 품어안아 키워준 조국을 깨울만한 광망과 의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 당이 150여년부터 대고대운을 보내오며 펴려보려 결심하고 기대를 함께 맞이하는 리명순동무와 이악한 투쟁을 벌였었다. 우리는 그해에 8대의 기대로부터 12대, 21대까지 직기를 맡아 천을 짜면서 5년 분계회를 완수하였다.

사회에 진출하여 16년밖에 되지 않은 제가 이렇듯 인생의 영광이란 영광은 다 받아안았으니 나처럼 높은 삶의 단상에 오른 여성이 어디에 있었는가.

3. 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나는 세상이 다든듯 격조높이 채워지고있다.

우리 여성들의 운명의 보호자이시며 친어머니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은 신념에하는 원수님을 모시어 조선 여성의 긍지와 영광은 팔이 없었고.

김정숙평안남도직공장 직포공로력영웅 문 강 순

3. 8 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 체육경기

3. 8국제부녀절기간 전국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체육경기 가 태권도전망에서 진행되였다.

지난 5일부터 벌어진 배구, 탁구 등 여러 종류의 체육경기는 우리 여성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광만으로 하여 이채를 띠었다.

총무별결승경기가 7일에 있었다.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리중부체육상, 관계부문과 녀맹일군들, 녀맹원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이면 서 편만한 체육기술과 집단주의 정신을 잘 보여주었다.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녀맹원들의 열광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숙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해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졌다.

집단의 단결력과 강인의 의지를 과시하는 바둑당기경기는 온 장대의 응원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위원장인 김용진대각부총리, 강준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

체육경기를 통하여 선수들과 응원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숙원수님의 뒤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곧게 뚫어 선군조선의 변혁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조선여성의 본분을 다해 나갈 혁명적의지를 힘있게 시위하였다.

이번 체육경기에서는 높은 기술과 집단력을 발휘한 함경남도 단체가 종합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향강도, 황해남도단체들이 2등과 3등을 하였다.

달린 다음 백두산절세위원들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을 안고 애국의 뜨거운 열정으로 조국의 농업과학발전에서 이바지한 김필주동무에게 명예박사학위가 수여되였다.

제29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 진행

제29차 평양시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였다.

축전은 농업, 금속, 전력, 기계, 건축 등 10여개 부과로 나뉘어 과학기술성파발표회, 전시회, 새 기술교류형식으로 진행되였다.

축전에 참가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3대체제 소조원, 로동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수백건의 과학기술문헌들과 제품들을 제출하였다.

발표된 자료들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일념만고 첨단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밀착시키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가치있는 성과와 인건으로 하여 참가자들과 근로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기간 많은 단위에서 출품한 새 기술, 첨단제품들에 대한 교류와 기술평가를 진행되였다.

축전에서는 평양기계대학 기계설계연구소와 10여명의 참가자들이 1등을 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참가자들에게 표창장과 증서가 수여되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성 순회대사 도착

그리고리 로고비노프 로씨야련방 외무성 순회대사가 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파주 로씨야연방대사관 공사참사가 맞이하였다.

유럽의 여러 정당 출신 정치인 대표단 귀국

영국레이버당출신 전 수상인 조지 로버트 포웰 국제경제기구 최고집행관

을 단장으로 하는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대표단이 7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어머니의 모습

얼마전 저는 귀여운 아기를 안고 평양산원을 나왔습니다. 수심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으며 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그리고 평범한 저를 위해 쓰여진 정성을 바쳐가던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의 아름다운 품성에 대하여 깊이 느꼈습니다.

산원에 입원할 당시 저의 건강상태는 몹시 악화되어 태어날 아기의 생명을 위협을 주고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신심과 용기를 준것은 그분께서 갖추어신원의 의료설비들과 매일, 매 시각 저를 지켜주는 의사선생님들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며칠밤을 밝히며 저를 따뜻이 돌봐주던 선행선생님을 비롯한 3산과 의료일군들의 그 뜨거운 정성을 정말 잊을수 없습니다. 그들의 높은 의술과 정성속에 아기는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산후 과산선생님을 비롯한 파

의료일군들은 저와 아기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것을 알고는 더욱 극진히 치료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낳은 어머니보다 더 열렬한 사랑의 정을 여기 평양산원에서 가슴깊이 느꼈습니다.

어느날도 그러하였지만 설명절에는 집에서 맛있는 음식까지까지고나와 함께 설을 쇠던 파의 로일군들의 뜨거운 정정을 아저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할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친정집이라고 정당하게 불리우는 평양산원에서 저는 각종 보약들도 받아안았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을 더욱 빛내여나가는 의료일군들을 소리로써 자랑하고싶습니다.

리명순

제미동 김필주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의식이 7일 만수대의 사당에서 있었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진대각부총리, 강준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

#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 미국을 단죄한다

##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인 미국이 또다시 주제를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들고나와 국제사회의 신랄한 규탄과 비난에 부딪치고있다. 미국은 인권이란 말자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나라이다. 인권의 모든 권리가 여지없이 유린당하는 인간생존이 다름아닌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남북교섭이전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간판밑에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세계도처에서

감행한 저들의 피비린내나는 인간 살육만행부터 역사앞에, 인류앞에 속죄해야 할 미국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시비하는것은 언어오도단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미국의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 인간생존권의 동토대

절로 보면 반장한것 같지만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보장되지 못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그것은 극소수의 특권계층이 기형적인 물질생활로 부를 향유하는 반면에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인간이하의 생활을 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국인구조사국은 지난해 9월 17일 통계자료를 발표하여 2012년에 전국적으로 빈곤자수가 그 전체에 비해 30만명 더 늘어난 4 65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4 464건의 강력범죄가 감행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총기류범죄가 고질적 없는 하나의 《악성범죄》으로 되고있다. 뉴욕에서 살인행위의 69.3%, 강도행위의 41%가 총기에 의해 저질러지고있다. 개별적주인들이 가지고있는 총기류는 약 3억정에 달하며 해마다 10만명이상이 총기류범죄로 피해를 입고있다. (미련방수사국 보고서 2013년)

2013년 1월에 전국적으로 가정들의 평균수입이 그 전체 12월에 비해 3.6% 줄어들어 가족이 나 생활고를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준 사실(미상부성 2013년 3월 1일)과 12월 4일 미국정권자가 미국사회가 직면한 도전이 소득에서의 극심한 차이이고 실업한 사실은 날로 우심해져서 사회적불평등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만민복지》를 떠드는 미국이야말로 인간생존권의 동토대라고 해야 할것이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같은 해 3월 26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3%가 기아위기와 살림집문제를 언급한 사회적문제들을 하나로 꼽았다. 반기아투쟁 뉴욕연맹 집행리사회리사장 버그는 신문 《뉴욕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뉴욕시에서만도 부유층이 값비싼 음식을 먹고있을 때 시민의 6분의 1이 굶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 《자유》, 《민주주의》, 《문명》은 기만

미국이 부르짖고있는 《자유》와 《민주주의》, 《문명》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반인민적인 선거제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 3항에는 《인민의 의사는 정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 의사는 일반적이며 평등한 선거권에 의하여 비밀투표 등을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며 공정한 선거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 선거는 선거자들에게 의한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아니라 얼마안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의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간접선거제도하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의사가 공명없이 무시당하게 되리라는것을 볼때 명백하다. 2012년에 진행된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은 57.5%에 불과하였다.

미국에서 선거는 돈부리기경쟁으로 되고있다. 2012년에 제헌을 노리고 민주당으로 나섰던 현 집권자 오바마와 공화당 후보였던 이진 마샤츠크 세프 주사 후비가 벌인 대통령선거경쟁에서 그해 10월말경에 벌써 20억여US\$가 낭진된것으로 하여 미국역사상 돈이 가장 많이 든 선거로 기록되었다. (미련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감싸이비용에 관한 최종보고서 2012년 12월 6일)

미국에서 선거는 돈부리기경쟁으로 되고있다. 2012년에 제헌을 노리고 민주당으로 나섰던 현 집권자 오바마와 공화당 후보였던 이진 마샤츠크 세프 주사 후비가 벌인 대통령선거경쟁에서 그해 10월말경에 벌써 20억여US\$가 낭진된것으로 하여 미국역사상 돈이 가장 많이 든 선거로 기록되었다. (미련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감싸이비용에 관한 최종보고서 2012년 12월 6일)

미국에서 선거는 돈부리기경쟁으로 되고있다. 2012년에 제헌을 노리고 민주당으로 나섰던 현 집권자 오바마와 공화당 후보였던 이진 마샤츠크 세프 주사 후비가 벌인 대통령선거경쟁에서 그해 10월말경에 벌써 20억여US\$가 낭진된것으로 하여 미국역사상 돈이 가장 많이 든 선거로 기록되었다. (미련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감싸이비용에 관한 최종보고서 2012년 12월 6일)

미국에서 선거는 돈부리기경쟁으로 되고있다. 2012년에 제헌을 노리고 민주당으로 나섰던 현 집권자 오바마와 공화당 후보였던 이진 마샤츠크 세프 주사 후비가 벌인 대통령선거경쟁에서 그해 10월말경에 벌써 20억여US\$가 낭진된것으로 하여 미국역사상 돈이 가장 많이 든 선거로 기록되었다. (미련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감싸이비용에 관한 최종보고서 2012년 12월 6일)

미국에서 선거는 돈부리기경쟁으로 되고있다. 2012년에 제헌을 노리고 민주당으로 나섰던 현 집권자 오바마와 공화당 후보였던 이진 마샤츠크 세프 주사 후비가 벌인 대통령선거경쟁에서 그해 10월말경에 벌써 20억여US\$가 낭진된것으로 하여 미국역사상 돈이 가장 많이 든 선거로 기록되었다. (미련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선거감싸이비용에 관한 최종보고서 2012년 12월 6일)

돈이 없으면 병이 나도 죽어야만 하는 반인민적인 보건제도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런 건강담보도 받지 못하고있다. 지난해 9월 17일에 발표된 미국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의료보험에 들지 못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의 수는 약 4 800만명을 헤아렸다.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미국사회에서 인간의 생명권과 불가침권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도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미련방수사국은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에 전국적으로 121만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세계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고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군기지사용료를 받아오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방적인 협정들을 체결하여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미군유지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미국은 공짜로 받아먹는 《방위비분담금》을 군사와 관련이 없는 일들에 마구 낭진하고있다. 특히 최근 미군이 2 400만US\$를 낭진하여 호화주택 2동, 1 040만US\$를 들여 미2사단기편, 판, 500만US\$를 들여 방제조시설 등을 건설한 것은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러한 건설에 필요한 부지비와 로버키역시 우리 민중으로부터 받아낸 형세로 충당하였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미군은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미국의 강도적행위이다.》 이것은 얼마전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문제를 관련한 미국의 남강도적전행을 규탄하여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실렸던 글이다. 최근 발행물은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문제가 또다시 여론화되면서 남조선 각계로부터 항의의 규탄의 목소리가 비발되고 있다. 올해초 미국은 남조선당국과 《방위비분담금》협상을 벌여놓았다. 《방위비분담금》이라는것은 남조선당국이 부담하는 미제침략군유지비중에서 미군이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 미군유지비문제를 놓고본 침략자의 정체

국련합군사령부의 유지비를 공동으로 부담할것을 강요하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후 1987년 미국은 련합전투력증강사업에 대한 자금부담을 늘일것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다. 결과 1989년 7월 제21차 남조선미국연락회담회의후 미제침략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이 지불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저들이 남조선의 안보문제를 책임지고있다는 구실을 내대면서 《방위비분담금》규모를 해마다 늘일것을 남조선당국에 강요하여왔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유지비를 농성이끝리듯 불구어왔다. 이번에도 미국은 협상초기에 남조선이 저들의 주장을 넘겨주지 않자 1조원이상으로 제시했다가 흥정으로 얼마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인권》소문을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횡, 침략과 학살을 일삼기 위한 기만적으로 착안하면서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 미국의 정체를 폭로단죄하는 다음과 같은 고발장을 발표한다.

남을 모해하려는 자들이 천벌을 면할수 없다

# 악의 화신들이 <악>라령을 한다

최근 미국부장관 케리가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 공화국을 감히 <악의 나라>라고 헐뜯었다.

대국의 외교수장으로 지처하는자의 언행치고는 너무나도 저급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민 위전을 좌우명으로 하는 당의 명도 밑에 인민들이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누리려고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하에서 우리 인민은 자기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우고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을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리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정책, 우리 식 사회주의를 떠나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 생활과 맑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삶의 보금자리인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우월한 제도를 제부도 절감하고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이 조선에 대한 체질적저부담과 적대감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데 습관된 케리의 눈에는 보일지 만부하하다.

그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악의에 차서 힐뜯는것은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있는데로부터 나오는 불인과 좌절감의 표현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들을 <악>으로 묘사한것은 케리의 창안품도 아니다.

세 세기에 들어와 호전적인 부위는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무력침공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케리는 <선>은 미국에만 있고 <선의 척도>로 되는 미국의 가치관에 배치되는 다른 나라들은 다 <악>으로서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부위의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하기에 우리는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꾸며진 그의 서론짜리 허풍담을 별로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케리는 남을 결코 자기 전 <자유>와 <민주주의>간판 밑에 국제법은 안중에 없이 세계도처에서 퍼버린나하는 인간살육만행을 강행하고있는 인권의 불모지인 제 나라 미국에 대해 세상사람들이 무엇이든 조소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구태여 악의 소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소재지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와 인류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으며 그로 하여 세계인민들이 가장 증오하고 적대시하는 존재로 되고있다. 미국이 걸어온 전로정은 침략과 약탈, 파괴와 살육으로 이어진 정복전쟁의 연속 과정이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미국의 국가테러, 무력간섭, 침략전쟁으로 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자주권이 유린되고 인민들이 피를 흘리었다.

지난 세기 이른바 <미국인보호>, <민주주의질서확립>이라는 간판 밑에 극히 적은 수의 군대밖에 없는 그네대이며, 뼈나마에 미국은 수많은 정예부대를 들이밀어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수리된 합법적정권들을 뒤집어엎었다. 너무나 많은 수살해 대고 수십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리비아에 맹공격을 가함으로써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고 세계를 전멸케 하였다.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은 평전 이후에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다.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평화 유지>, <지역분쟁해결>의 간판밑에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내정간섭과 무력침공으로 짓밟아버리

고있다. 미제가 강행한 발전전쟁은 파멸적 한 침략자, 살인마, 평화의 극악한 원수, 악의 제국의 흉악한 정체를 낱낱이 보여주었다.

새 세기에 집권한 미국의 부위호 전세력은 극도의 동맹성으로 사로잡혀 강권과 전횡을 일삼았다. 그들은 집권하자마자 <힘의 정책>을 전면내세우고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나라들을 반대하여 무분별하게 날뛰었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테러지원국>, <불평배 국가>의 감투를 함부로 씌우고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전례없는 공세를 벌였다. 주권국가인 이라크를 너무나 많은 수살해 내내고 무력을 들이밀어 타고앉은 날강도무리가 미국이다.

국제무대에서 <핵무기없는 세계>를 부르짖으면서도 새로운 핵군비경쟁, 핵전쟁의 바람을 일으켜 인류를 핵전쟁위험속에 몰아넣고 세계를 위협하는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호전세력들은 그 무슨 <위협>을 구실로 30년동안 존재하여온 오각미싸일체한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범죄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는 길로 내닫고있다. 미싸일방위체계수립과 관련하여 심상적으로 할것을 권고하는 동맹국들의 충고마저 귀담으려 들지 않는 태도로 행동하고있다.

미국은 초보적인 국제질서와 규범마저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있다. 세계주에 군림하여 다른 나라들에 호령하고 지시하며 저들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있다.

미국이 도사리고있는 곳에서는 거의 매일과 같이 피비린 살육과 강탈, 강간 등 각종 범죄행위들이 일

어나고있다. 일본의 오기나와에서 미군병사들이 10대의 나이 어린 녀학생을 집단강간한 사실, 남조선강점 미군이 녀학생들을 장갑차의 무한행진으로 깔아죽인 귀족같은 살인만행 등은 해외주둔 미군범죄의 일탄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작전을 벌리고있는 미군은 <테러집단>을 소멸한다는 구실밑에 결혼식장을 폭격하여 장지족을 세상에 양도 만드는 야만들이다.

미국의 일방주의적이며 강권적인 침략과 인권유린, 살육만행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증오와 분노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자위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나라 인민들은 미국을 악의 제국, 세계최대의 불평배국가, 평화의 파괴자, 전쟁의 원흉이라는 혐오스러운 이름들과만 결부시키고있다. 백악관은 모든 악을 계획생산하는 악의 소굴, 이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평가이다.

만일 케리의 평가 정상이라면 국제사회가 미국을 어떻게 평하는가 하는것을 뜻물리겠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심해질수록 그에 대한 세계의 비판과 항거는 더욱더 커지리라된다.

미국이 존엄을 우리 공화국을 너무나없이 힐뜯으면서 엮어나가다가는 당신밖에 당할것이 없다.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이미 선택한 자주적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테러무기들을 비난을 늘어놓는 데만 매달리는 것이어도 행렬은 간다는 격언을 상기시킨다.

미국은 횡포한 적대정책이 어떻게 쓰든 참패로 끝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리 현 도

#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미국은 남을 함부로 결코든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를 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트린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은 지난 2일 2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조선의 전략군 부대들이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로테트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발사된 로테트들은 동북방향을

으로 안전하게 비행하여 정해진 목표수역들에 정확히 도달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로테트발사훈련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대변인은 로테트발사훈련에 대하여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중상감싸려움을 벌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비난하였다. <키 리콜브>, <독수리>함동군사연습과 미국부장관

케리가 조선을 <가장 폐쇄적인 나라>, <사악한 곳>이라고 한 망발이야말로 조선에 대한 도발이라고 하면서 그는 여기에는 최근 조선의 주동적인 조치에 따라 북남대화와 조일협곡의 기기가 나타나고있는데 대한 미국의 배아픈 속내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미국의 CNN 방송,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NHK방송도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를 보도하였다.

#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광신자들은 오판하지 말라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 주재조선연구소가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의 <키 리콜브>, <독수리>함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2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강행하고있는 범죄적인 함동군사연습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정의있는 논의를 기울이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엄청난 도발행위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대행위를 중지할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무시하였다.

이번 군사연습은 미국이 떠벌이되고있는것처럼 <년례적>이며 <방어적>인것이 아니라 조선에 침략하기 위한 전쟁도발계획에 따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수호를 위해 자체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할것이지만 도발행위의 침략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전쟁광신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체력과 인내력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그 어떤 도발행위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범죄적이고 침략적인 불장난소동을 당장 중지하라!

양키는 제 집으로 돌아가라! \* \* \* \* \* 캐나다의 인터네셔널론 <글로벌 리치>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의 대조선적대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미제국주의는 쇠퇴를 띠면서 <초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 조선여성들은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역량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찬양

녀성존중, 녀성사랑의 화연에서 시대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날터이며 값높은 삶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 나라 녀성들의 모습에 각국 출판보도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있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트린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3.8국제부녀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녀성들이 열렬한 축하를 받고있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그들속에는 조국의 안전을 지키는 군관급인들도 있고 조선인민군 군관들의 안해들도 있다. 그들의 용감성과 아름다운 소행을 찬양한 시와 노래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녀성군인들과 함께 수많은 과학자, 예술인, 체육인, 기술자를 비롯하여 많은 녀성들이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여성들은 당과 정부의 관심속에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있다.

1948년 조선에서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직이 있는 때로 부터 오늘날까지 수많은 녀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조선당과 정부는 녀성들의 역할에

할을 고도로 중시하고 그들에게 높은 관심을 보이고있다. 세계적연령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집지 <플레이쉬>는 조선에서는 녀성존중의 범람적현상이 마땅히 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난날 온갖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되어오던 조선녀성들은 오늘 선군혁명위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랑스럽고 힘있는 존재로 되고있다.

일제기 녀성문제를 사회혁명의 근본문제라 한 나라로 보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후 녀성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선전선우후유가 보장되고 녀성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가는 곳마다 보건, 교육 시설들이 있다. 국가가 훌륭한 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건설해주고있다.

방글라데시신문 <브리즈>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있다.

녀성들에 대한 김일성주석의 천애비인사랑은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그대로 계속되었다. 김일성주석은 자라는 녀성들의 건강과 더 좋은 생활조건보

장을 위해 국가적투자자를 아끼지 않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온 사회에 녀성존중의 기풍을 확립해주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녀성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로 이끌어 주시었다.

조선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역량으로 조선의 조영국신문 <더 뉴 워커>는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녀성들은 특별한 사회적 혜택을 받고있다. 그들에게 충분한 선전선우후유가 보장되고 있다. 가는 곳마다 보건, 교육 시설들이 있다. 국가가 훌륭한 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건설해주고있다.

브라질신문 <오라 도 보보>는 조선녀성들은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있다. 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농업과 농업은 물론 조국위와 교육, 문화에 줄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그들은 선군정치를 받들고 나라의 자주권을 사회주의를 적극 옹호하고 해나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미친개에게는 몽둥이 짚질이 제일

## 범죄자 대변인

미국부장관 케리가 우리의 <인권문제>를 결코 <악의 나라>라고 헐뜯겠다는 소식에 접하니 격분을 금할수 없다.

케리라고 하면 <초대국> 행세를 하는 미국의 호전적의 거두라고 하는자이다. 그런 자가 어떻게 초보적인 페도의 없이 우리 나라의 현실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있다.

사람들사이에도 그런 악담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부

장관이라고 하는자의 입에서 그런 악의에 찬 비방중상이 거침없이 나오는것을 보면 미국사회의 도덕적현실을 알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듣는 말은 다들어서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화목하게 사는 인민의 세상이다.

악이란 인간의 자주적으로 구애어긋나는 나쁜짓으로서 인민이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 케리는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다녀간 로트벤을 비롯하여 자기 눈으로 현실을 그대로 보고 간 사람의 객관적인 시각은 알리고도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장 <탈북자>들의 개소리를 퍼발아우는 미친 영부세를 내를 데는 내지 말아야 한다. 미국부장관이 범죄자대변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들어서야 되겠다.

경공업성 국장 최창범

불과하다. 아무래도 케리가 제 밀구린줄을 모르는 천치인것 같다. 하지만 오늘 명백히 해야 할것이 있다. 미국이야말로 온갖 더럽고 가장 끔찍한 악이 공거처럼 흐르는 악의 소굴, 악의 본산이다.

이곳에서 온갖 악덕의 회생물로 되어 낭떠러지인형으로 살아가는 녀성들, 어린 이들의 운명앞에서 그 누구도 <악>으로 모독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은 누가 시키지도 않고 외눈으로 노가 되지 않는 <세계인

권보고서>를 해마다 만들어 발표하며 그 누구를 <악>이요 뭐요 하며 실례발을 치기보다는 저들의 날로 악화되는 인권현편부터 개선해야 한다.

우리 기관안의 전제 일군

## 임부리가 화근이 될수 있다

미국부장관 케리라는자가 감히 우리 나라를 헐뜯는말을 제쳐놓는 보도를 듣고 속이 뒤집혀 참을수 없다. 이자는 어느 한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공화국을 <악의 나라>라고 헐뜯는데 이어 다음날에는 <세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악담을 뱉어놓았다

대정신이 온전하지 못지 않을수 없다. 그야말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질적인 적대감이 골수에 찬자들만이 내뿜을수 있는 악담, 악의 본산이다.

총기부림피가 만연되어 매일과 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것도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일으켜 무고한 인민들을 매일, 매시 각 죽음으로 몰아넣고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핵전쟁이 밖에서

들라 녀명원들은 풀수없는 악다구니질로 우리를 어찌 보려고 악을 쓰는 미국을 악의 원수라고 준엄히 단죄규탄한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성종실

하는것이 온통 범죄투성이인 주제에 남을 결코들 처치가 되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풀수없는 늪에라는 이런자들은 술치기 말해서 말할 상대도 안된다.

입에서 무슨 험악한 소리가 나오는것도 모르고 생각나는데로 임부리를 놀려대는 케리에게 상대를 똑바로 하고 온전한 정신에 임할제도 할것을 충고한다.

미국은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혼신질을 토틀할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주권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자기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려는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누가 가부른 용서치 않는다.

대외문화사업위원회  
최화선 김형철

## 미국의 인권보고서 배격

이란외무성이 1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부성의 인권보고서를 규탄배격하였다.

성명은 미국자체가 수많은 인권유린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알려져왔고 하면서 그 대표적실례로 판마노모기감옥과 비밀감옥들에서 수감자들을 고문, 학대한 사실, 세계도처에서 무인기를 리용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한 사실 등을 들었다.

이로부터 미국은 인권문제를 두고 다른 나라들에 선포할 자격도 없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미국부성이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권문제를 놓고 이란을 반대하는 무고한 선전을 계속 일삼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안고 산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투쟁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5년전인 1909년 3월 8일 미국의 시카고에서 녀성노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은 녀성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꿈에서 깃발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분노와 울분의 폭발이었다. 그때로부터 한세기가 상 지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온갖 불평등과 사회적저속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적존재로, 녀성으로서 자주적인 삶과 행복찬 생활을 누리려는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의 꿈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생활의 꿈을 잃은 수많은 녀성들이 비참한 인생행로를 걷고 있다.

그 어디에도 안식처는 없다

한 외신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의 처지는 동지없는 새와 같다고 보도한바 있다. 집이 없이 사는 녀성들은 물론이고 집이 있는 녀성들에게도 다같이 어울리는 표현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집은 결코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불행의 화근이다. 온갖 폭행이 살판치는 폭력범죄의 공간으로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매해 200만명 이상의 녀성들이 가정폭력의 희생생물로 되고있다. 가정폭력행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미국에서

## 생활의 꿈을 잃은 자본주의나라 녀성들

가정폭력범죄라는 피이한 범죄자 만들어지고 결혼중지를 발표할 때 가정폭력부가제를 받게 된다.

유럽나라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유럽사회가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유럽에서 녀성들의 12-15%가 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되고있다.

프랑스에서는 3월에 1명이, 영국에서는 1주일에 2명이 가정폭력범죄에 의해 목숨까지 잃고있다.

가정에서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된 많은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은 감옥을 유일한 피난처로 정하고 우정 범죄를 저지르고 행을 지고있다. 이것은 오히려 이를 피하려다 범을 만난 격이 되고있다. 미국의 감옥들에서 해마다 약 6만명의 녀성수감자들이 성적학대나 폭행을 당하고있다. 텍사스주에 있는 한 감옥에서는 간수가 의사로 가장하고 의무실에서 5명의 녀성들에게 성폭행을 가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은 그 어디에서도 꿈결에도 그리는 생활의 보금자리, 마음의 안식처를 찾을수 없다.

## 그 고바람의 첫번째 피해자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고립적인 경제위기로 많은 기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있다. 자본가

들은 저들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근로자들을 마구 해고하고있으며 이로 하여 실업자들이 끊임없이 늘어 나고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첫번째 피해자가 바로 녀성들이다.

녀성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때문에 그들은 리유부주에 눈이 어두운 경영주들로부터 무지막지한 해고를 강요당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일자리를 제일 힘겨운 일인것도 녀성들고 제일 쉽게 메우는것도 그들이다. 여행 선물을 얻은 녀성들의 경우에도 극심한 차별을 받고있다. 서방인론들까지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들이 직업을 얻는다는것은 <황소가 바를 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개탄하고있다.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는 해마다 38만여명의 녀성들이 일자리를 잃고있다.

미국에서 녀성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남성들이 받는 임금의 76.2%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근로자들 가운데서 70%상이 녀성들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녀성근로자들은 남성근로자들에 비해 평균 16%나 적은 임금을 받고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녀성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성행하여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되고있다.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1.1%가 녀성들만

취업에서 차별을 당하고있다고 밝혔으며 93.2%는 로동현장에 남녀평등을 가라라는 장애물들이 존재하고있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대대적인 해고소동과 로동생활에서의 차별행위는 세계적으로 약 15억명의 녀성근로자들을 산생시키고있다.

## 활성화 되고 있는 <성산업>

자본주의사회에서 활성화되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산업>이라 해야 할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로 하여 근 250만명 이상을 희생하고있다. 강제 로동에 종사하고있는데 그 대부분이 녀성들이다.

미국은 <성산업>이 가장 활성화되는 나라이다.

일본은 녀성매매의 주요목적지로 되고있다. 무용수선발, 로리사제용, 미용사모집 등 인신매매범죄조직의 거점도시인 도쿄에 속한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출신자와 수많은 녀성들이 이 섬나라로 끌려가고있다. 그들은 일본에 고용주들에게 팔린 순간부터 모든 자유와 권리를 잃고 갖은 학대와 멸시속에 성노예로 전락되고 있다. 고용주들의 학대 또한 가혹하기 지고있다. 만일 반항했다가는 최도에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는것이 그들의 기막힌 운

명이다. 미련방수사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대체로 녀성들이 매춘행위를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13살이며 지어 9살에 매춘업에 발을 들여놓는 소년들도 있다고 한다. 아직 세상물정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진한 소녀시절부터 돈에 팔려 치욕스러운 성노예로 탄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처지에 빠져들고있다. 초보적인 생존전마저 잃은 수많은 녀성들이 상품화되어 인신매매의 희생물로 되고있는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야말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매매행위와 매춘업은 공해라는 하나의 효험으로 <산업>으로, 큰 돈벌이수단으로 되고있다.

## 삶의 막바지에서 선택한 길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은 생활의 모든것을 잃고 삶의 막바지에서 허덕이고있다.

녀성천시의 수와 녀성수에서 삶에 대한 희망과 꿈마저 버리고있다. 비판과 절망에 빠진 녀성들이 라카처럼 살인, 폭행, 강탈 등 각종 범죄의 길로 서슴없이 뛰어들고있다. 체면같은것은 완전히 헤버리고 이 길을 택하고있다.

일본에서는 자기 자식을 마구 학대하거나 살해하는것과 같은 상상도 못할 범죄가 녀성들

의해 식은 죽먹기로 저질러지고 있다. 어린애를 뺑이기로 넣고 정기를 투입하는가 하면 심지어 세라기에 넣고 돌리고 또 갖난아이를 쓰러뜨려 버리거나 자식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는것이 바로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 묻이 없지 않을지라도 자식이 없기때문이라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말하고있다.

돈에 목이 매여 모성의 권리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이 비극적현실은 모든 자본주의나라에서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버리는것을 허용하는 법이 만들어져 자식을 버리는 기록이 세워지는가 하면 서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 리유 40가지>라는 책이 출판되어 녀성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렇게 모성애가 매달라가는 속에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은 범죄의 구렁텅이에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지금 자본주의나라 녀성들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살고싶다. 사랑받게, 인간답게.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녀성들이 자기자신과, 생활의 소박한 꿈이 없는가도 실현될수 없다. 그들의 비참한 운명은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사회제도가 팔장나야 개선될수 있다.

본사기자 박송영



중국에서 남극에 탐험기지 건설